

몰래 접하는  
남한 드라마의  
묘미

“남조선  
드라마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박선아 지음





“남조선 드라마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지은이 소개: 저자 박선아는 2018년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며, 관심분야로는 탈북청소년, 북한의 사회문화, 통일시대의 교육 등이 있다.

“남조선 드라마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몰래 접하는 남한 드라마의 묘미-



## 차례

들어가며 .....	9
소리로 하는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	12
북한사회에 퍼지는 남한 드라마 .....	14
“남조선 드라마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	16
그들이 남한 드라마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18
장르별로 살펴보는 “인기 만점 남한 드라마” .....	19
남한 드라마로 인한 변화 .....	24
나오며 .....	27
참고문헌&자료 .....	29

## 초록





## 들어가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북한 사람들이라고 호기심이 없을까. 미지의 것에 대한 선천적인 호기심과 더불어 북한 정권의 외부세계에 대한 경계와 비판은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세계에 더 큰 유혹을 느끼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외부문화에 대해 외국인보다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하긴 하지만, 당 권력의 감시망을 피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젊은 탈북자들 중 일부는 북한의 관영 매체가 지겨웠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sup>1)</sup>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외부와의 단절을 끊임없이 추구해왔고 일종의 세뇌교육을 통해서 당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도록 시도해왔지만,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에 대한 반복학습과 김씨 일가의 업적들에 대한 내용과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지겨웠던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세뇌교육은 북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북한 사람들은 ‘바깥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감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미디어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남한문화, 그것은 북한사회 내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남한문화가 북한사회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분명히 무언가 드러나게 될 것일 텐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문화가 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

1) 정광성, “南北정상회담 등 표면적 유화 분위기에다 사상 통제는 더욱 강화,” 『월간조선』, 2018년 10월 20일자.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811100018> (2018.11.23. 검색)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으로 쏟아지는 남한문화가 북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만약 남한문화가 매력적이라고 북한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면, 그로 인해 북한 사람들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까?

강동완 연구자는 한류 문화의 확산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sup>2)</sup> 또 다른 연구<sup>3)</sup>에서는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디지털매체의 확산과 보급이 남한 영상물 시청의 증가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상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외래문화 유입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단속과 통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살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이 부정부패와 뇌물을 통해 주민들과 공생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남한문화에 주목하되, ‘드라마’라는 미디어를 도구로 활용하여 수용 양상과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각각을 살펴보기 위해 탈북자들의 증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자료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언론매체의 보도 등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자료조사를 하는 가운데 주목했던 것은 남한에서 생산된 드라마를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는지, 드라마를 듣거나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종류의 남한 드라마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남한 드라마를 보고 난 이후에 심리적 혹은 외적 변화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등이었다.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

---

2) 강동완, 2013, “북한의 신세대 문화, 어디까지 왔나”, 『월간북한』, 북한연구소, pp.94-99.

3) 강동완, 2014,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통일인문학』, 60: 167-202.

서는 북한 내부에서 생산된 1차 자료를 일부 획득할 수 있었고,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조치나 남한 드라마의 확산 배경 등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얻었다. 이외에도 북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남한 대학생으로서 개인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분석한 부분도 일부 존재함을 미리 밝혀둔다.

## 소리로 하는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북한에서는 어느 가정에도 국영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춘 스피커가 한 대씩은 있고,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취미로 인식된다.<sup>4)</sup> 북한 정권의 편향된 언론 보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외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북한 외부의 변화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외국 방송을 청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전자기기에 대한 기초 지식만 알더라도 라디오를 뜯어서 다른 방송국까지 수신하도록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중 일부는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구입한다. 중국에서 밀반입하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관리들이 찾아내려는 품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sup>5)</sup>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북한 당국도 이미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고 그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외국 라디오 방송 중에서도 남한 대북라디오는 언어적 유사성이 큰 이점으로 작용하여 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 남한을 제외한 다른 외국 라디오 방송은 대부분 지식과 정보 전달에만 치우쳐 있다면 남한의 것은 그에 비해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북한 사람들의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그 중 청장년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라디오 드라마’이다.

4) 『북한행 엑서더스』 (테사 모리스-스즈키, 2008)에서 히로코라는 여성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공부와 사회노동이 끝나고 나서 남은 시간에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5) 존 에버라드, 2012,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이재만 역, 서울: 책과함께, p.99.

“북에서 방송 어떤 건지 아시죠? 맨날 ‘남조선 괴뢰들이’ 그런 게 나오는데, 화내는 것처럼 나오는데 맨날 그런 것만 듣다가 (...) 제일 기억, 좋았던 건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극장 하면서, <보람이네 집>, <단소와 은장도>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_ 《KBS 뉴스》, 2016년 9월 2일자 방송, 탈북자 인터뷰.

다소 폭력적으로 비취지는 북한 방송과 달리 남한 라디오 방송은 드라마 속에 생생한 북한의 실상들을 녹였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더 선호하는 대상이 된다. <보람이네 집> 같은 경우 남한사회의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을 통해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람 사는 정겨움을 느끼게 하는 드라마로 제작되었는데, 라디오로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본을 소리 내어 읽어보더라도 몰입도가 굉장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라디오에서 듣게 되면 즐겁게 청취할 것 같았다.<sup>6)</sup>

이외에도 <바람따라 구름따라>라는 라디오 드라마를 녹음하는 장면이 나온 뉴스에서는 성우들이 실감나는 북한 사투리로 연기를 하고 있었다.

“초모생(군 입대자) 식구 위로금이라니”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바쁜 주민들에게 초모생(군 입대자) 식구들의 위로금이라니, 강도배(강도단)가 아니라면 주민들의 재산을 더는 약탈하지 말게나.”

\_ 《KBS 뉴스》, 2016년 9월 2일자 방송, KBS 한민족 방송에서 <바람따라 구름따라>를 녹음하는 장면.

6) 라디오 드라마 대본을 읽고 싶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http://www.kocca.kr))를 방문해볼 것을 추천한다.

위의 사례처럼 라디오 드라마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활용하고 문화어의 억양과 발음까지 비슷하게 구현해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떠올리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남한 매체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오히려 향유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만든다.

### 북한사회에 퍼지는 남한 드라마

소리로 하는 라디오 드라마도 북한 사람들에게 인기인데,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남한 드라마의 인기는 오죽할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와 동아대학교 강동완 교수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는 85% 이상, 중국을 왕래하는 북한 주민도 56%나 남한 드라마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니<sup>7)</sup> 북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남한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테다. 이런 남한 드라마의 인기를 의식이라도 한 듯 2016년 9월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고서에 남한 드라마를 포함시켰다.<sup>8)</sup> 남한 드라마가 미국의 정치적 압박 수단 중 하나로까지 채택된 것을 보면, 그 영향력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디오 드라마는 일종의 정치적 목적성을 띠고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지만, 남한 드라마는 의도성을 지니고 있는 매체가

---

7) 《MBC 뉴스데스크》, “남한 드라마 인기에 北 ‘비상’...단속도 무용지물”, 2015년 3월 31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xlCZRXPtzhw> (2018.11.22. 접속)

8) 《YTN 뉴스》, “美, “한국 드라마로 북한 체제 흔든다””, 2016년 9월 8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j6FUytfqMG0> (2018.11.21. 접속)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남한 드라마가 북한에 유입되는 걸까? 탈북자들은 중국을 통해 남한 드라마가 유입된다고 증언한다. 한 언론 보도에서는 중국 단둥 시내에서 남한 드라마를 불법으로 복사해서 호황하는 업소가 즐비하고, 남한 드라마가 시장에 깔리는 데에는 이들이 채 걸리지 않을뿐더러 북한에도 곧바로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다.<sup>9)</sup>



중국 단둥에서 잘 팔리는 남한 드라마 DVD. (왼쪽부터 차례로) 옥망의 불꽃, 호텔킹, 왔다 장보리.

위의 사진과 같은 남한 드라마 복사본은 장마당에서 천 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달 평균 월급의 1/3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쌀 1.5kg와 동일한 가치를 지닐 만큼 꽤 비싼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로 복사하거나 친구들끼리 돌려보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한다.<sup>10)</sup>

남한 드라마가 북한에서 확산되는 데에 기여한 것은 다른 아닌 디지털 기기의 보급 확산이다.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후 중국산 저가 영상 장치들이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서 남한 드라마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중국산 EVD는 CD, DVD, USB를 직접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북한 주민들은 이 기계와 USB를 통해 남

9) 《MBC 뉴스데스크》, 위의 방송.

10) 《연합뉴스 TV》, “[뉴스1번지] 북한 주민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2015년 4월 2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QGiYfn78qY0> (2018.11.21. 접속)

한 드라마와 영화를 예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sup>11)</sup>



2013년까지는 이 휴대용 기기(EVD)를 전력 사정이 좋을 때 충전해 놓았다가 밤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남한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건전지로

‘노트텔’이라고도 불리는 중국작동하는 MP5 플레이어가 등장한 EVD 플레이어.

면서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의 외곽지역까지도 남한 드라마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sup>12)</sup> 휴대전화도 남한 드라마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300만 명 이상이 사용한다고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도 남한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SD 카드에 드라마를 담아 놓았다가 단속이 나오면 전화기에서 빼내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어렵다. 누군가 남한 드라마가 저장된 USB나 다른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몸을 수색할 때 바로 빼서 콧속에 집어넣는다는 이유로 북한의 남학생들은 이것을 ‘콧구멍 카드’라는 익살스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sup>13)</sup>

**“남조선 드라마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전자기기의 발달로 외곽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남한 드라마를 향유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미디어 검열을 담당하는 단속원들까지도 대부분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드라마는 전

11) 《MBC 뉴스데스크》, 위의 방송.

12) 《MBC 뉴스데스크》, 위의 방송.

13) 《JTBC 뉴스》, “북한 주민, ‘콧구멍 TV’로 한국 드라마 본다?”, 2017년 11월 1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m-aF-uohEiU> (2018.11.21. 접속)



혀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짓말로 시종일관 대답하는 북한 사람들. 그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을까?

김미소 탈북방송인은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남한 드라마를 보거나 남한 노래를 들었다고 표현하면 총살을 당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사돈에 팔촌까지 온 가족이 모두 총살을 당하기 때문에 봐도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sup>14)</sup> 하지만 탈북자 출신 BJ의 말에 따르면 남한 드라마를 본다고 무조건 총살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드라마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걸리게 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법’인데, 실제로는 단속반에게 걸리게 되었을 때 돈(뇌물)을 지불하면 처벌을 무마해주는 경우도 있었다<sup>15)</sup>고 하니 법보다도 돈이 더 중시되는 북한사회의 현 실태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돈의 영향력이 커지긴 했지만 총살의 위험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인민보안부에서 포고령을 내렸을 때 걸리면 시범적으로 총살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조선 드라마를 보면 죽는다는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데, 300, 500명, 심지어 1000명까지 모아놓고 총살하는 경우도 있다.<sup>16)</sup>

신의주 인민재판이 담긴 영상<sup>17)</sup>에서 북한 보위부 간부는 “남조선 영화 한 편과 남조선 노래 75곡을 녹화기에 입력하여 시청하는 범죄를(...)”이라고 말하며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본 북한 주민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공개재판과 처벌이 이

14) 《연합뉴스 TV》, 위의 방송.

15) <또향TV>,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면 총살당하나요?”, 2018년 1월 14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JYOeykUlpBc> (2018.11.22. 접속)

16) 《연합뉴스 TV》, 위의 방송.

17) 《MBC 뉴스데스크》, 위의 방송.

어저도 효과가 크지 않다. 2010년 말부터 109 상무<sup>18)</sup> 같은 단속반까지 가동되고 청소년들을 단속하기 위한 고등학생 상무조도 만들었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다. 남한 드라마를 판매 하던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단속원들도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단속한 것은 당에 바쳐야 하니까 복사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sup>19)</sup>고 했는데, 이런 사례로 미루어 짐작해볼 때 단속반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단속원들까지도 남한 드라마에 대한 흥미를 버리지 못하는 상황을 파악한 북한은 결국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된 당 간부 등 10여 명을 처형하기도 했다.

## 그들이 남한 드라마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단속과 공개처형이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는 듯하다. 도대체 무엇이 남한 드라마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 비밀은 ‘중독’에 있는 것 같다.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떤 때는 이틀 동안 잠을 안자고도 보거든요. 그래도 봐도 지치지 않고 피곤한 걸 모르겠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DVD로, CD로 이제 TV랑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데, 엄마 아빠는 너무 속상해서 “너 이러다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잘못되는 꼴을 봐야겠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

18) 북한정권이 영상물과 불법 출판물, 라디오와 녹화기 단속을 목적으로 조직된 사상, 미디어 통제검열조직.

19) 《MBC 뉴스데스크》, 위의 방송.

도 저는 이제 이걸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드라마요?) 이제 뭐 <천국의 계단>, <가을동화> 흔히 북한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치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봐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중독돼버린 거죠. (그 다음 얘기를 안 보면 막 미치겠는 거죠?) 네네.”\_<모란봉 클럽> 18회 中

한 여성 탈북방송인이 이야기한 대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에 중독된 상태라면, 과연 북한 사람들이 ‘중독’되는 현상은 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 북한 사람들 자체의 문화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한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려보더라도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를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학교생활을 했던 경우가 많은데, 북한 사람들의 드라마를 향한 애정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인다. 또한 주변에서도 휴일 등을 활용해서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는 친구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북한 사람들이 접하는 드라마는 다음 회차를 일주일 정도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감시만 피한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이어서 볼 수 있다는 점도 중독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 장르별로 살펴보는 “인기 만점 남한 드라마”

남한 드라마의 매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 그들이 특히 좋아하는 남한 드라마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남한 드라마에 매혹되었을까? 북한의 언론에서 언급된 남한 드라마, 탈북자들이 즐겨 본다고 알려져 있는 남한 드라마, 그리고 남한의 언론을 통해 소개된 북한에서 인기 있는 남한 드라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 ○<가을동화>

네 남녀의 사랑, 이별, 아픔에 대한 슬픈 사랑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주연 배우로는 송승헌, 송혜교, 원빈 등이 출연하였고, 남한에서는 2000년에 방영되었다.

#### ○<겨울연가>

배용준과 최지우가 주연 배우로 연기하였으며, 결혼을 앞둔 한 여자에게 죽은 첫 사랑과 닮은 한 남자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이다. 남한에서는 2002년에 방영됐다.

#### ○<천국의 계단>

금지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몸부림치는 네 남녀의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권상우와 최지우가 주연 배우로 연기했다. 2003년 말부터 방영되었다.

#### ○<불멸의 이순신>

이순신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로 2004년부터 약 1년간 방영되었고, 주인공은 배우 김명민이다.

#### ○<욕망의 불꽃>

한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파멸을 부르는 탐욕, 권력에 대한 갈구, 부에 대한 동경과 멸시, 애증이 엇갈린 사랑을 그린 드라마이고, 50부작으로 편성되어 남한에서는 2010년 말부터 약 6개월 간 방영되었다.

#### ○<아테나 전쟁의 여신>

첩보원들과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석유의 대체 에너지로 개발 중인 원자로를 둘러싼 대결을 그린 드라마로, 정우성, 차승원, 수애, 이지아 등이 출연하였고 남한에서는 2011년에 방영되었다.

#### ○<호텔킹>

2014년 방영된 드라마로, 어머니와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한을 품은 한 남자가 냉철하고 빈틈없는 호텔리어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 ○<왔다 장보리>

친딸과 양딸이라는 신분의 뒤바뀜으로, 극도의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두 딸과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남한에서는 2014년에 방영되었다.

#### ○<태양의 후예>

낮선 땅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사랑과 성공을 꿈꾸는 젊은 군인과 의사들을 통해 삶의 가치를 담아낼 휴먼 멜로드라마로, 송중기, 송혜교 등이 주연 배우로 등장했으며, 남한에서는 2016년 초에 방영되었다.

위의 남한 드라마들을 장르별로 구분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로맨스”,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역사물”, 가족 모티브가 기반을 이루는 “드라마”, 그리고 볼거리와 긴장감을 제공하는 “액션물.” 9개의 드라마가 네 개의 장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남한 드라마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체제와 관련된 한정된 주제만을 다루고 있는 북한 드라마와는 구별되며, 매년 같은 내용으로만 선전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던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다채로운 남한 드라마들은 흥미를 끌기에 충분

하다.

북한에서 인기 있다고 전해지는 남한 드라마들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을동화>,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그리고 가장 최근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남한에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인데 종영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북한에서도 인기였다고 한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며 북한 사람들의 감정이입을 이끌어낸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강조하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국가와의 사랑을 담은 북한 드라마를 시청해온 그들로서는, 남녀 간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세심하게 표현하는 남한 드라마가 신기하게 다가온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로맨스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남한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들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훌륭한 연기와 출중한 외모도 그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 영화를 보면서 할리우드 배우들에게 관심을 갖고 팬이 된 경험을 떠올린다면 북한 사람들의 느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멸의 이순신>으로 대표되는 역사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학자나 지식인 계층을 의미하는 듯하다)에게 선호되는 장르라고 한다.<sup>20)</sup>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해서 관심을 갖는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북한이 동일한 역사를 공유했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드라마에 비해서 익숙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왔다 장보리> 같은 가족 모티브 기반의 드라마들은 북한 사람들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남한 가족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사건들에

---

20) 《KBS 뉴스》, 위의 방송.

몰입하며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테나 전쟁의 여신>과 같은 액션드라마도 북한 사람들에게 인기<sup>21)</sup>라고 하는데, 다른 장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풍부하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이 많다는 점에서 북한 사람들의 지루함을 달래줄 좋은 드라마일 것이다.

한편, 장르와 관계없이 일부 남한 드라마들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욕망의 불꽃>은 가족 모티브를 바탕으로 남녀 간의 사랑도 다루는 드라마인데, 제목에 들어있는 ‘욕망’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북한 체제에 반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권력과 부에 대한 동경이 주된 내용 중 하나라는 점에서 북한 사람들이 기존에 경험했던 모든 사회를 뒤집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체제적인 색채를 띠도록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 데올로기를 배제하고 만들어졌을 지라도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비춰지게 된다. 권력을 추구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도 북한사회 내에서 권력을 원하는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도. 하지만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와는 달리 북한을 부정적으로 그려내거나 북한 체제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드라마의 경우에는 북한 사람들도 시청하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반사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드라마는 여러 번 보지 않고 한 번만 본 이후에 바로 불태워버린다<sup>22)</sup>고 한다.

---

21) 《MBC 뉴스데스크》, 위의 방송.

22) <또향TV>, “북한에서 유명한 한국 드라마, 노래 TOP5”, 2017년 3월 28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0BAVfjxq5f0> (2018.11.22. 접속)

이를 통해 남한 드라마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드라마는 최대한 피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 남한 드라마로 인한 변화

장르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 남한 드라마는 몰입도와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그래서 남한 드라마에는 남한 사람들의 생활모습이나 사회변화 등이 녹아 있다. 서울 도심에 높이 솟은 아파트와 건물들이 등장하고 도로에는 번쩍거리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남한에서 가정과 직장의 생활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부 충성심 강한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의 폐해에 주목하면서 남한 사회를 안 좋은 곳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일반적으로는 남한 사회에 대한 환상을 품고 남한을 동경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새로운 무언가를 접할 때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남한 드라마 속에 드러난 주인공의 모습과 남한 사회의 모습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는 다른 점이 많고, 남한에서의 생활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 드라마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영국 출신 외교관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남한 드라마가 북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술한 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분명히 지인들 상당수는 남한의 인기 TV 드라마를 담은 불법 DVD를 보며 북한 텔레비전의 따분함을 달랠



다. (중략) 북한 사람들 대다수의 소망을 훌쩍 넘어서는 생활수준과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의 자유를 보여주는 이런 상상의 세계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과문을 일으켰다.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남한의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은 다른 행성 이야기인 듯한 생활에 매료되면서도, 북한 영화를 논할 때처럼 인물의 행동과 배울 수 있는 교훈 같은 도덕적인 측면으로 재빨리 초점을 옮기곤 했다. 나는 비무장지대 이북에서 남한의 드라마들이 상세히 분석된다는 것을 그 제작자들이 과연 알고 있을지 궁금했다.”(존 에버라드 2012: 96)

그렇다면 남한 드라마로 인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북한 내부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2016년 말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남한 드라마가 북한에 내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너무 한국 영화 드라마 봐서 말투도 이제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없던 말투, 처녀 총각 연애할 때 ‘자기야’, ‘오빠야’ 이런 말투 우리 댐 없었거든요.”\_ 《KBS 뉴스》, 2016년 12월 27일자 방송.

이 증언에 근거해서 추측하건대, 북한 사람들의 말투와 표현이 점차 남한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사이에서도 남한 드라마가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데, 개성 8사단의 상사로 일했던 탈북자는 남한 드라마에 나왔던 명대사를 따라 하기도 하고 말투도 드라마 속

주인공들과 비슷해졌다고 말했다.<sup>23)</sup> 이외에도 청년들의 경우에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거나 눈썹을 그리는 방식이나 입술 색깔 등 화장법에도 변화가 생겨났다고 하는데<sup>24)</sup>, 이를 통해 남한 드라마가 북한 청년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데모 행위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체제에 저항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부 북한 사람들에게는 남한 드라마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탈북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 탈북자는 남한 드라마를 통해 남한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깨지게 되었고, 북한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됨과 동시에 남한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고 증언했다.<sup>25)</sup> 탈북하기로 결심한 것이 표출되는 순간 생존에 위협이 되고 중국으로 건너가다가 잡힐 가능성도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남한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 훨씬 크게 작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3) <모란봉클럽>, “북한에 울려 퍼지는 남한의 인기가요!”, 32회, 2016년 4월 23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TC4KDJKV2fQ> (2018.11.22. 접속)

24) <또향TV>, 2017년 3월 28일자, 위의 방송.

25) <또향TV>, 2017년 3월 28일자, 위의 방송.

## 나오며

이 글은 남한 드라마를 도구로 활용하여 북한 사람들이 바깥세상에서 유입되는 외부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다루었다. 남한 대북라디오 방송의 유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라디오 드라마를 필두로 하여, 남한 드라마가 중국 단둥과 북한 장마당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들까지도 남한 드라마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실제로는 남한 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감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현 실태를 살펴보았다.

한편, 남한 드라마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관심과 중독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남한 사람들도 드라마를 즐겨 본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즐겨 본다고 알려진 남한 드라마들을 나열하여 네 가지 장르-로맨스, 역사물, 드라마, 액션물-로 구분하여 각 특징을 살펴보고, 네 장르 모두 공통적으로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지닌 북한 드라마와는 달리 주제의 다양성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등으로 인해 북한 사람들의 문화적 결핍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감시망을 피해서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북한 청년들의 모습이 남한 청년들과 비슷하다는 점이나 말투나 표현도 남한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남한 드라마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 체제가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존재할까? 남한 드라마의 영향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북한도 이미 시장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곳이 되어 버렸다. 감시나 단속에서 걸리더라도 뇌물로 처벌을 무마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단속원들의 충성심도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걸음으로는 체제가 유지되는 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생존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은 훨씬 북한사회에 근접한 발상일 것이다. 생각을 품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기에, 체제의 부당성을 인식하게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저항문화를 형성해나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저항과 표현이라는 행위로 옮기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해나가면서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체제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목숨에 위협을 받게 되는, 은연중에 감시를 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것이 훨씬 설득력 있는 견해가 아닐까 싶다.

## <참고문헌>

강동환

2013, “북한의 신세대 문화, 어디까지 왔나,” 『월간북한』, 북한연구소, pp.94-99.

2014,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통일인문학』, 60: 167-202.

존 에버라드

2012,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이재만 역, 서울: 책과함께.

테사 모리스-스즈키

2008, 『북한행 엑서더스』, 한철호 역, 서울: 책과함께, p.365-390.

## <자료>

<또향TV>, “북한에서 유명한 한국 드라마, 노래 TOP5”, 2017년 3월 28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0BAVfjxq5f0> (2018.11.22. 접속)

<또향TV>,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면 총살당하나요?”, 2018년 1월 14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JYOeykUlpBc> (2018.11.22. 접속)

<모란봉클럽>, “남한 드라마에 중독됐던 은아!”, 18회, 2016년 1월 9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bN8VYc6L\\_DU](https://www.youtube.com/watch?v=bN8VYc6L_DU) (2018.11.22. 접속)

<모란봉클럽>, “북한에 올려 퍼지는 남한의 인기가요!”, 32회, 2016년 4월 23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TC4KDJKV2fQ> (2018.11.22. 접속)

《연합뉴스 TV》, “[뉴스1번지] 북한 주민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2015년 4월 2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QGiYfn78qY0> (2018.11.21. 접속)

정광성, “南北정상회담 등 표면적 유화 분위기에도 사상 통제는 더욱 강화,” 『월간조선』, 2018년 10월 20일자.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811100018> (2018.11.23. 검색)

한국콘텐츠진흥원, “보람이네 집 방송대본.”

[www.kocca.kr](http://www.kocca.kr) (2018.11.24. 접속)

《JTBC 뉴스》, “북한 주민, ‘콧구멍 TV’로 한국 드라마 본다?”, 2017년 11월 1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m-aF-uohEiU> (2018.11.21. 접속)

《KBS 뉴스》, “[통일로 미래로] 서울에서 평양의 새벽을 연다... 대북방송”, 2016년 9월 2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nc1FIONSBRg> (2018.11.21. 접속)

《KBS 뉴스》, “한국 드라마 다 본다...말투까지 한국식으로 변해”, 2016년 12월 27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EbAN388OqjQ> (2018.11.21. 접속)

《MBC 뉴스데스크》, “남한 드라마 인기에 北 ‘비상’...단속도 무용지물”, 2015년 3월 31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xlCZRXPtzhw> (2018.11.22. 접속)

《YTN 뉴스》, “美, “한국 드라마로 북한 체제 흔든다””, 2016년 9월 8일자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j6FUYtfqMG0> (2018.11.21. 접속)



## 초록

본 연구는 북한에서의 외부문화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부문화 중에서도 남한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다. 특히 ‘드라마’라는 미디어를 도구로 활용하여 북한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고 드라마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인 수용 양상과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활용한 것은 인터넷과 저서를 통해 공유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었으며, 자료의 제한성을 보완하고자 언론 매체에서의 보도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즐겨듣거나 자주 시청하는 남한 드라마의 특성을 로맨스, 역사물, 드라마, 액션물 장르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 드라마의 단조로운 구성과 일률적인 주제와는 달리 남한 드라마는 다양한 주제와 볼거리로 인해 북한 사람들의 문화적 결핍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문화적 욕구를 채우고자 감시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남한 드라마를 향유하는 실태는 북한사회 내부에서의 가시적인 변화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북한 청년들의 겉모습이나 말투 등이 점차 남한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 등에서 드러났다.

주제어: 북한사회, 북한 사람, 미디어, 외부문화, 남한 드라마.



저자: 박선아

발행일: 2018년 12월 7일

발행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ISBN: 979-89-98062-90-0







9 798998 062900